

실습 장비 태부족...학생들은 자비로 대여해 충당

박혜림 기자 apricot12@khu.ac.kr

예술·디자인대학 연극영화학과 학생들이 '부족한 촬영 장비와 관리 소홀'을 호소했다. 연극영화학과에서 영화를 전공하는 A 학생은 졸업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배우와 스태프 섭외, 장비 대여, 장소 섭외 등을 위해 800만원의 비용이 들었다. A 학생은 "영화를 찍을 때는 모든 것이 돈이다"라며 "낮에는 시나리오를 쓰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답했다.

A 학생은 장비 대여에만 3일 기준 150만 원 가량을 지출했다. A 학생은 "학교엔 기본적인 삼각대, 조명 장치, 카메라 렌즈조차 너무 구형 모델이거나 망가져 쓸 만한 것이 없다"며 "필요 장비는 전부 대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몇 년 전에 고장 난 장비도 그대로 방치돼 신입생 때 쓸 수 있던 장비마저도 이제는 사용할 수 없다"며 "그나마 작동되는 카메라마저도 버튼이 하나 빠져 조작이 힘들고 렌즈엔 흠집이 많이 나 있다"고 전했다.

연극영화학과 보유 장비 목록에는 5억 2천만 원, 240여 개의 촬영 장비가 등록돼 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구매한 촬영 장비는 카메라 4대, 캠코더 1대, 삼각대 및 조명기 각 3대 등 총 33개, 총액 6천만 원에 불과했다. 연극영화학과에서 장비를 관리하고 있는 한 조교는 "장비 수는 적지 않지만, 대부분 불용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혹스러운 건 교수들도 마찬가



연극영화학과 기자재실. 낡았거나 고장난 장비가 많을 뿐더러 그나마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박혜림 기자)

지다. 이번 학기 '극장 스태프와 음향' 강의를 맡은 권순장(연극영화학) 교수는 "대면 수업에 앞서 학과에 보유 장비 리스트를 요청해서 받아보았지만, 학교에서 보유한 장비로 원하는 수업을 진행하기에는 부족해 보였다"고 전했다. "사실 부족한 수준이 아니라 전혀 없다"는 권 교수는 "우리 학과는 강의 수도 많고, 강의마다 사용되는 장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모두 구비할 수는 없겠지만, 학생들이 장비를 다루는 것을 실제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장비는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학과 측은 학생들의 상황을 이해

하면서 재정과 인력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입장이다. 연극영화학과 이영석 학과장은 "학생 입장에서 장비가 너무 노후화되고 수량도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상황을 교수님들도 대체로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예산을 연극학과와 영화과가 나눠서 쓰는데다 영화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는 것에 따라 장비교체를 수시로 하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힘들다"며 "여러 사람 손을 타다보니 고장이 나고, 그 수리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장비를 관리하는 인력이 수시로 교체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도

어려워 보였다. 이 학과장은 "대학원 조교가 관리하다 보니 길어도 두 학기, 보통은 한 학기 주기로 교체된다"며 "업무를 배울만하면 교체가 되다보니 장비, 프로그램 구매와 수리 등 장기적으로 이 업무를 지속해나갈 수 있는 인력이 있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예술·디자인학계열 종합행정실 오승주 행정실장은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는 예술·디자인학계열의 특성상 풍족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10년 이상 동결된 등록금, 입학정원 감소 상황에서 물가상승과 노후 시설 관리 비용 증가 등으로 재정 상황이 계속 열악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오 실장은 "정부 교육 사업에 선정되어 별도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거나 기부금을 모금하는 등의 재정확보 방안을 고려 중이고,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선 효율적 행정 운영과 원활한 수업 지원을 위해 인사처에 학과별 직원 인력 충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위해서는 소통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연극영화학과 B 학생은 "영화과를 담당하고 계신 교수님께 학과 발전 방안에 대해 건의를 했지만 이에 대한 답변 없이 회피성 내용만 메일로 돌아왔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해당 교수는 "교수 개인도 큰 힘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점을 처리할만한 뚜렷한 방안이 없었다"고 해명하며 "현재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의견을 조율하기 힘든 것을 알지만 개인이 아닌 단체나 학생회를 통해 건의한다면 교수들과 소통하고 실질적인 대책 방안 마련을 하는 데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고 전했다.

이영석 학과장은 "앞으로 노후화된 것은 폐기 처리를 하고 적당한 장비를 구매할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올해는 현황을 좀 더 파악해 장기적인 구매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촬영 도중 소모품이 분실되거나 장비 손상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결국은 학과에 손실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신입생 모집 2021 전기

- 접수 기간** : 2020. 10. 19(월) 10:00 ~ 10. 26(월) 17:00까지
 - 입학원서 접수는 100% 인터넷으로만 실시함
 - www.uwayapply.com (유웨이어플라이 원서접수) 접속,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선택하여 신청
 - 원서접수 마감일 17:00까지 전형료 결제까지 마쳐야 접수 인정
- 고사장 안내** : 2020. 11. 25(수) 15:00 ~
 - 교육대학원 홈페이지(http://edu.khu.ac.kr)에 공지
- 면접고사** : 2020. 11. 28(토) 10:00 ~
 - 일반전형, 특별전형 지원자 전체
 - 전공별로 면접시간이 상이함(2020. 11. 25. 고사장 안내 참조 바람)
 - 시험 시작 20분 전까지 입실
 - 시험장소 : 서울캠퍼스 청운관 / 국제캠퍼스 멀티미디어교육관
- 합격자 발표** : 2020. 12. 18(금) 15:00
- 합격자 등록** : 2021. 01. 04(월) ~ 01. 08(금) 16:00
 - 세부사항은 신입생 모집요강 내 수험생 유의사항 참조
- 문의처** : 서울캠퍼스 Tel. 02)961-0135~6 / 국제캠퍼스 Tel. 031)201-2021~2